

리빙 미리 준비하는 여름휴가 계획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여행지 선택의 우선순위는 자연환경 건기·자전거·캠핑 등 나만의 여행을 해외 단체여행 내달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공작자들에게 3년에 한 번꼴로 한 달 남짓의 유급 독서 휴가를 주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비롯된 말 ‘세익스피어 베케이션.’ 조선의 세종 또한 젊은 선비들에게 긴 휴가를 주어 집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게 했다는 사가독서(賜暇讀書)와도 비슷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휴가, 휴식은 필요한 일이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후일을 도모할 에너지를 얻어내는 일. 각각의 방법으로 휴가 계획을 미리 구성해보자.

▶그래도 여름휴가는 여행이 대세=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10~50대 남녀 2779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이 있는 여행지로 37% 응답을 받은 제주도가 뿔뿔하다. 이어 강원도(18.8%), 부산(16.6%), 서울(7.1%)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형태로는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았고, 친구(23.5%), 연인(13%), 나 홀로(8.2%) 순이었다. 여행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한 응답은 ‘자연’이 31%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콕, 호캉스 등 멀리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이 있지만 여름휴가만큼은 밖으로 나가 여행을 통한 즐거움을 찾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휴가지 분산을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과 휴양지의 혼잡도를 5단계로 나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하고, 한적한 관광지

를 홍보할 방침이다. 해당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와 앱, 바다여행 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된다. 또한 휴가지에서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2m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동행자 중심으로 소규모 활동할 것을 대국민 권고했다.

▶“여행 계획, 여기서 세워보세요”=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2021 여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을 발표했다. 소나무 숲이 매력적인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문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예술의 섬 전남 여수시 장도, 덕유산이 품은 청정 계곡의 대명사전북 무주군 구천동, 짜릿한 모노레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경남 통영시 옥지도 등 상대적으로 한적하면서도 특색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관광지들이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두루누리(https://www.durunubi.kr/)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건기 여행과 자전거 여행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각각의 길의 거리와 소요시간, 난이도 등이 기록돼 있으며 테마별 길, 전문가 추천 길 등 세분화해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리 다녀온 여행 선배들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고캠핑(https://www.gocamping.or.kr/)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2636개의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며 해변, 섬, 숲, 계곡, 호수 등 테마별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전기는 사용 가능한지, 와이파이는 있는지, 매점과 물놀이장 같은 편의시설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올 여름엔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기대감 솔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관리하는 단체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 입국자의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내달 시행을 목표로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여행기간 동안 방역 전담관리사가 동행해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지정된 여행 동선 이외의 개별 이동은 불가하다.

트래블 버블이 체결된다면 해당 국가에 대한 여름휴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행업계는 발 빠르게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고, 항공업계도 그동안 운항을 중단했던 노선을 재정비해 다음달부터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빗장을 푸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9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열었고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녹색 등급은 가장 완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입국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스페인인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건강 관련 서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리스는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은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스위스도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각 국가별로 입국 이후 현지 여행지 별로 추가 확인을 요구하거나 현지 방역 상황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로 돌아왔을 때 격리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일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관

그 섬이 거기에 있었다

제주에서는 계절이 바람을 타고 흐른다. 바다도 산도 그 바람에 맞춰 흔들린다.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하늘이 되는 곳. 작은 오름과 거대한 한라산이 하늘을 향해 자리한 곳. 그리고 그 자연 모두를 감싸 안는 섬의 바람. 제주를 바람의 섬이다. 그래서일까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속에는 제주의 바람, 바람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담겨 있곤 한다. 때로는 그 움직임들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간절해서 보는 이들의 마음 또한 세차게 흔들린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두 편의 사랑 영화에는 그 간절함이 극진한 사연으로 담겨 있다. 제주 출신인 배우 고두심이 해녀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소준문 감독의 영화 ‘빛나는 순간’은 ‘바다에서 숨



영화 ‘빛나는 순간’.

내가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모르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내가 모르는 나의 감정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자신을 위해 사랑을 시작하고 흔들리고 주저앉는 사랑을 붙잡고 알싸안는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뻑뻑하게 담긴 이 영화에는 서럽게 울고 있는 마음 안의 소리들이 풍광을 다독이다 마침내 또렷한 소리를 낸다.

김양희 감독의 작품 ‘시인의 사랑’ 또한 제주를 배경으로 어느 날 세차게 불어오는 사랑의 순간들을 마주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시인과 시인의 아내 그리고 한 청년의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의 결들이 겨울의 제주와 함께 펼쳐지는 이 영화는

잡을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마음들이 파도치는 영화다. 사랑이 찾아올 때와 머무를 때 그리고 떠날 때가 모두 담겨 있는 이 영화에서 겨울의 제주 풍광은 마음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해 영상에 담기 위해 그녀의 달린 마음을 열어 보려고 노력한다. 처음엔 진옥이라는 해녀가 필요해서였고 결국엔 진옥이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싶어졌다. 바다의 속은 알아도 자신의 속내는 모르던 진옥은 자신의 빗장을 열고 자 애쓰는 그의 움직임들 덕에 마음에 묻어둔 감정 하나를 어렵사리 마음 밖으로 꺼내 놓는다. 사랑이

있다. 이토록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마음 안에 묻어둔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열고자 했던 사람과 끝내 마음의 문을 연 또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축복처럼 내리쬐다.

그렇게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빛나는 순간’이 두 사람에게 내리쬐다. 나이 차이를 금기로 부르지 않는 시대지만 익숙하지 않은 감정과 낯선 시선을 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검열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가능성도 위험성도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수축상 대통령 표창 이태영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장) 대통령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정읍자율방재단 단장 윤덕철 외 단원일동

수축상 대통령 표창 이태영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장) 대통령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비전청년포럼

수축상 대통령 표창 이태영 국가재난관리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꿈에그린펜션 가족일동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대박’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